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4. 06	04. 13	04. 20
대 표 기 도	이상호 목사	김새연 자매	최종열 성도
성 경 봉 독	정환영 형제	김새연 자매	최종열 성도

교회소식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사순절(3월5일~4월19일) -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절제된 삶을 사는 기간입니다. 디지털 금식(SNS, 스마트 폰, TV)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4. 성찬식 - 다음 주일(4월6일)은 성찬예배로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합니다.
5. 고난주간 기도회 - 일시:4월 4일(월)~4월 9일(토) 오전 7시, 예배당
6. 나눔의 시간 -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십 일 조	
합계 (Euro)	
온라인헌금(3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롬12:15)”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HanMin Gemeinde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홈페이지 :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413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이상호 목사
성경봉독 Predigttext	엡 4 : 25 - 32(신p315) (1.Moses 45:1-10)	김정규 형제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회복 - 철저한 평가	이상호 목사
*파송찬양Abschlusslied	나의 영원하신 기업(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성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성김이들을 위하여
2.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3. 임마누엘의 은혜와 함께 하는 공동체의 기쁨을 나누게 하소서
4. 김선택, 장보경(형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유혹은 도적같이 온다

에스키모 사람들이 이리를 사냥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들은 칼 한 자루와 짐승의 피만으로 이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먼저 예리한 칼날에 짐승의 피를 발라 그것이 얼 때까지 놓아둡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다시 피를 발라 얼리고, 또 피를 발라 얼리는 과정을 피가 칼날을 완전히 덮을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런 다음 칼날을 위로 보이게 해서 칼자루를 땅에 단단히 묻습니다. 밤중에 이리는 피 냄새를 맡고 접근해 칼날을 핥기 시작합니다. 얼어붙은 짐승의 피와 싸늘한 금속이 이리의 혀를 마비시키고 마침내 이리는 칼날에 자기 혀를 베어 자기의 더운 피를 맛보게 됩니다. 이리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허겁지겁 피를 핥게 되고 혀는 더욱 깊은 상처를 입다가 마침내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것은 성적 어둠의 세상에서 장난삼아 죄악에 집적대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어느날 아침에 일어나 “내 인생을 망쳐볼까? 만사가 너무 태평하니 미련한 짓을 좀 해야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파멸을 자초하는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유혹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유혹의 낚시조차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로 산다는 것 / Craig Groeschel 목사(Life Church 담임)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성도로서 선한 말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나눠보세요.
2. “예수님처럼 산다”를 구체적으로 나눠보세요.